

광주 지·산·학·병·연, '전남대 글로벌대학30' 맞손

시-상의-대학-병원-TP 참여
본지정 선정·인력 양성 등 협력
메가캠퍼스·에듀생태계 등 추진
오는 26일까지 실행계획서 수립

광주시와 전남대 등 지역 지·산·학·병·연(지자체·산업체·대학·병원·연구기관)이 전남대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9일 전남대 대학 본부에서

'전남대학교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위한 지산학병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정성택 전남대학교총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지역 지산학병연 주요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산학병연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의 노력을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남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본지정 선정 지원 △지산학병연 상생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계 발전 계획 수립 △지역사회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공동 인력 양성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대가 공동으로 작성 중인 글로벌대학30 실행계획서 주요 전략과제는 △메가캠퍼스 조성 △에듀생태계 구현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 △인공지능 혁신 허브 구축으로, 앞으로 5년 간의 실현 계획과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8개 부서장,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연구원 등으로 전남대학교 글로벌대학 지원반을 구성해 지역발전 방향을 연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제시, 사업 발굴 등에 매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학혁신과 지역발전

을 위한 글로벌대학30에 정성과 뜻을 모으기 위해 지산학병연이 모였으며" "광주시는 최초로 교육청년국을 신설해 인재 양성 사다리의 한 축을 만들어낸 만큼 글로벌대학30을 위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26일까지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통해 8월께 최종 10개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한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신창동 유적' 10년 정비계획 세운다

전문가 원탁 협업회의 개최
보존·활용 선순환 체계 마련

대한민국 대표 마한 문화유산이자, 국가 지정 문화유산(사적)인 '광주 신창동 유적'의 내실있는 정비·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는 9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광주 신창동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국가 사적은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10년 주기로 '유적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창동 유적 종합정비계획'은 지난 2014년 수립, '신창동 마한유적 체험관' 건립과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10년 주기가 끝남에 따라 새로 유적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주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최신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광주 신창동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원탁협업회의'를 마련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이날 회의에서 유적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정비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보존·활용·정비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신창동 유적은 전체 면적의 30% 정도 발굴된 상황"이라며 "미조사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연구방향을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유적 주변의 가로등, 보도블럭, 버스정류장 등을 유적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특화사례로 정비하는 등 선도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 후에는 신창동 일원에 마한역사문화마을, 신창나루 역사공원, 목책성벽, 농경지 등을 복원한 역사재단지를 조성하고 영산강 수변공원에 숙박·캠핑·연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영산강·황룡강 Y-벨트사업과 연계해 유적과 영산강이 조화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김영록 도지사 이렌홍 중국 저장성 당서기 회담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서호국빈관에서 이렌홍 중국 저장성 당서기와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파라과이, 소방안전 교류협력 '눈길'

강 시장, 파라과이 대사와 교류논의
파라과이 "소방차 지원·교육에 감사"

'소방'으로 맺은 광주시와 파라과이의 돈독한 우정이 빛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9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미겔 앙헬 우발디노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 파라과이 대사와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광주시와 파라과이 간 소방 교류 및 자연·사회재난 안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로메로 대사는 "한국은 파라과이 소방 시설 개선에 가장 많이 지원·협력해준 나라이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된 광주와의 인연은 우호관계를 넘어 가족, 친구 같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며 "소방차량, 교육연수, 기술 교류방안 등 광주시의 지원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비오 코다스 비알바 파라과이 의용소방대 부회장은 "파라과이 소방은 자원봉사자인 의용소방대로 운영된다"며 "차량, 장비 등을 지원해준 광주와 함께 파라과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자연·사회 재난은 날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배우고 성장하며 시민 안전 지킴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켜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소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실상부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는 파라과이 소방교류와 같은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들이 쌓여 이뤄진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도시외교를 통

해 포용도시로 한발짝씩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로메로 대사는 광주시와 광주소방안전본부에 소방 교류협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교육 사업을 지원받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파라과이에 교육훈련단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교육훈련단을 파라과이에 파견해 현지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에는 파라과이 소방대원 18명을 초청해 20일까지 광주소방학교에서 재난대응과 응급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을 추진한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량 37대를 무상 지원했으며, 올해는 소방차 12대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공공배달앱 '떡깨비' 2주년 이벤트

선착순 4천명 대상 5천원 할인

전남도가 공공배달앱 '떡깨비' 2주년 기념으로 11일부터 5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이벤트는 선착순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떡깨비 앱에서 결제하면 5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5% 페이백과도 동시 적용 가능하다.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상생배달앱 뽕겨우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

은 중개수수료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맹점주는 가입비, 광고비 없이 가맹이 가능하며, 신규 가맹점은 2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공공배달앱 떡깨비는 올해 상반기 결산 기준 누적 가맹점 1만 개소, 회원 10만명, 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하며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가맹점도 16%, 회원 수는 10% 증가했다.

2023년 12월 도입한 상생배달앱 뽕겨우 또한 누적 가맹점 2000개소, 회원 수 3만명, 매출액 6억원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폐지 어르신에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 지원

광주시는 만 65세 또는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폐지 수집 어르신 607명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를 지급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폭염 안전물품 꾸러미'는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에 휴대용 선풍기, 형광 망사 안전조끼, 양우산, 쿨스카프, 쿨패치, 벌레약, 식염포도당, 자전거 후미등 등 9가지 물품과 폭염 행동요령 소책자가 담겨있다.

안전물품 꾸러미는 각 구청을 통해 전달되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부를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 수집 어르신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폐지 줍는 어르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폭염기간 '자원재생활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재활용품 사전 선별 등 안전한 일 자리를 제공하고 경비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KB국민은행의 기부금 1억원을 활용해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경량수레 160여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침수피해 방지' 방조제·배수장 집중 점검

전남도는 지난 5일까지 5일간 여름철 극한 강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방조제와 배수장을 중점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조제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해수 유입을 방지하고, 배수문을 통해 육지의 담수를 바다로 배출해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로 전남에는 1058개(전국 1676개 중 63.1%)의 방조제가 설치됐

다.

배수장은 자연 배수 능력 이상의 강한 강우가 내릴 때 배수펌프로 물을 강제 배출해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로 전남에 총 207개의 배수시설이 운영 중이다.

배수 관련 시설인 방조제와 배수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농경지 침수, 농업시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배수펌프·배수문의 작동 여부, 관리상태, 전기·기계 고장 발생 시 비상 대응 계획 점검에 나섰으며, 모든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비상상황 대응 계획을 통해 안전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대비 태세도 점검을 통해 몇몇 시설 주변 수초 제거, 배수로 준설 등 시정 사항을 발견해 즉시 조치했다. 노후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찰해 향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